

실연의 아픔, 여자와 남자 중 오래 가는 쪽은



이별 후 찾아오는 실연의 아픔이 모두에게 똑같은 상처로 다가오는 건 아니다. 어떤 사람은 이별 후 끝난 사랑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이 바로 훌훌 털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이별의 시간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. 이 가운데 연인과 헤어졌을 때 실연의 후유증이 남성과 여성 즉, 성별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.

한국의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레와 재혼전문 사이트 온라인-유는 지난 2019년 한국 전역의 미혼남녀 510명(남녀 각 255명)을 대상으로 '실연의 후유증'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그 결과 '열애하던 애인과 본의 아니게 헤어질 경우 실연의 아픔은 얼마나 지속됩니까'라는 질문에 '6개월'이라고 답한 남성 비중은 29.4%, '3개월' (23.9%)과 '1년' (18.0%), '1개월' (16.9%) 등이 뒤를 이었다. 반면 여성의 경우 응답자의 32.2%가 '3개월'이라고 답했다. 이어 '1년' (18.0%), '1개월' (16.9%) 순이었다.

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볼 경우 남성의 절반 이상인 54.5%가 '6개월 이상'이라고 답한 것과 달리 여성의 절반 이상인 58.1%는 '3개월 이하'라고 답한 것이다. 이별의 후유증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'실연의 아픔을 잊는데 가장 좋은 방법'에 대한 대답도 남성과 여성은 달랐다.

남성의 경우 '일에 몰두한다' (27.8%)는 답이 가장 많았지만 여성은 '상대의 단점을 떠올린다' (31.4%)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. 다음으로 '새 애인을 만든다' (남 23.6%, 여 26.3%)와 '친구와 어울린다' (남 18.8%, 여 20.0%), '취미 활동에 집중한다' (남 14.9%, 여 13.7%)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.

한편 최근 과학자들은 대규모 온라인 토론 포럼에서 184,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, 연인과의 이별 후 사랑 상대가 필요한 사람의 약 55%가 남성, 약 45%는 여성이었다. 이별의 상처에서 도움이 더욱 필요한 쪽은 남성이란 결과인데,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추측된다.

먼저 '남자는 울면 안 된다'라는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. 여성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과 달리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 해 온라인에서 익명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.

또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고통에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원인으로 나타났다.

사진=Shutterstock.com

용접 및 하우스 리모델링 모든 것 해결해 드립니다



철대문 제작/설치 및 펜스 설치
녹슬어 떨어지거나 망가진 곳
플러밍, 페인트, 타일, 에어컨
LED Light, Slipfence
하우스 리모델링, 화장실 리모델링
Metal Door, 콘크리트, 방범창살, 핸드레일

SK 핸디맨 펜스/플러밍/리모델링
909.969.3669

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



이 책은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시달렸을 법한 11가지 고민들을 실제 내담자의 목소리로 들려주고, 그 고민에 대한 정신의학적 솔루션을 제시한다. (중략)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이고,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최명기의 해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만나리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. (인터넷 교보문고의 '책소개' 중에서)

■ 최명기 지음 | 다산북스 펴냄 | 328쪽



커뮤니티 양로병원

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

24시간 병간호

-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
- 링거투여, 호스피스케어
- 외상치료, 호흡기치료, 기관절개치료

각종 여가활동

- 각종 교육 프로그램
- 아트와 게임
- 종교활동
- 운동 프로그램

다양한 제공

병원 예약, 차량제공
영양상담과
다양한 메뉴 제공

**메디케어, 메디칼
Private/HMO/PPO**

9620 Fremont Ave., Montclair, CA 91763
(909) 621-4751
한국어 상담: Faith Lim (562) 714-7792
www.communityech.com

아늑하고 편안함,
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
한국인에게 친절한
상담을 받으세요.


